



親睦夜間週會

東萊

부산동래로타리클럽

 WEEKLY BULLETIN THE ROTARY
 CLUB OF PUSAN DONGRAE

RI 會長 標語

“로타리를 경축하자”

**CELEBRATE
ROTARY**
100 years
Glenn Estess, sr.

2004-05 ROTARY International President

RI 會長

글렌 E. 에스테스, Sr

3660 地區 總裁

春秋 金昌局

會 長 :	金 泰 潤
次 期 會 長 :	李 圭 玄
副 會 長 :	林 奉 圭
總 務 :	尹 聖 國
財 務 :	康 珉 碩
클 럽 奉 仕 :	姜 鎭 奎
職 業 奉 仕 :	金 錫 煥
社 會 奉 仕 :	柳 根 洙
國 際 奉 仕 :	金 亨 祐
理 事 :	金 鍾 奎
週 報 :	崔 洙 鉉
司 察 :	李 柱 鉉

* 週會場 : 허심청 2층 사파이어 룸(A)
 * 事務所 : 釜山市 東萊區 壽安洞593(壽安ID103號)
 TEL. (051)555-3703 FAX. (051)556-0185

▣ 로타리 創立 100周年 慶祝辭 ▣

尊敬하는 總裁 地域代表님, 클럽 會長님과 會員 여러분, 저는 우리 地區 모든 로타리안과 함께 로타리 創立 100周年을 慶祝하게 된 것을 대단한 기쁨이며 榮光으로 생각합니다. 2005년 2월 23일, 이 날은 로타리가 創立된 지 100周年이 되는 뜻깊은 날입니다. 이 날의 歷史의인 意味는 로타리가 世界 最初로 奉仕를 組織化했으며 自願奉仕 概念을 보편화시켰다는데 있습니다. 그래서 로타리는 地域과 國境을 넘어 世界的인 奉仕團體로 成長 發展했고 世界는 로타리가 提供하는 奉仕를 질실히 必要로 했다는 것을 意味하기도 합니다. 지금 100周年을 맞이하는 참뜻은 단순히 과거의 實績을 돌아보기 위함보다는 未來를 바라보고 새로운 目標과 Vision이 設定되고 새로운 挑戰에 임하는 마음 다짐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創立 100周年을 맞이하는 團體는 별로 많지 않기 때문에 이를 맞이하는 우리의 心情은 실례임 이상의 깊은 感動과 祝福과 榮光이 우리의 기쁨과 보람으로 이어집니다. 그래서 당연히 地區 次元에서 大의인 行事로 로타리를 慶祝하고 싶은 마음 간절하나 여러 가지 條件上 各 地域區別로 또는 클럽別로 로타리를 慶祝하기로 했습니다. 따라서 各 地域區와 클럽은 나름대로의 프로그램으로 2월 23일이 들어 있는 週間에 慶祝 週會를 開催하고 이 날을 뜻깊게 記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난 100년의 우리가 그러했듯이 앞으로의 100년도 더 많은 挑戰과 더 많은 約束으로 로타리의 理想과 目的이 具顯되기를 期待하겠습니다.

♣ 100주년 맞는 지구촌 로타리 ♣
【 아시아 인도의 특별한 의료봉사 】

- * 아시아(2004. 10. 31. 현재) * 클럽: 8,369개
- * 회원: 29만 8,478명 * 최초클럽: 팔리핀 마닐라(1919)
- * 한국의 유창순, 박종훈, 김정열, 남덕우 등 4명의 전직 국무 총리는 한양RC 회원이었다.

Vandan Gaokar는 상처가 악화되어 생긴 족부기형으로 20년 가까이 고통 받아 왔다. 36세 이 여성의 상처는 결국 척추신경까지 침범하였고, 이 소식을 접한 Bicholim RC 회원들이 팔을 걷어 부칠 때까지는 모두가 속수무책이었다. 로타리안들은 빠르게 행동했다. 의료진을 수배하고, 치료비를 포함한 모든 비용을 부담하고, 심지어는 헌혈을 통해 수술에 필요한 혈액까지도 모두 준비했다. 로타리안들이 들인 6개월의 정성으로 그녀는 완전히 바뀐 삶을 살게 되었다. 이런 이야기는 인도가 아시아의 어느 곳에서든 들을 수 있다. 로타리가 추구하는 봉사의 영역은 다양하지만 4천여 지역 사회에 로타리가 뿌리내려 있는 인도에서만은 누구에게 물어봐도 로타리 하면 보면 단채라고 대답할 것이다. 벽지에서 매년 개최되는 수천 군데의 보건캠프에서건 최첨단의 시설에서건 인도 로타리인들이 주도하는 건강관련 프로젝트는 수백만 주민에게 큰 혜택을 주고 있다. 국경을 넘은 봉사도 있다. 인도인들은 파키스탄의 소년 Noor를 잊을 수 없다. 비록 정치적으로는 대립하고 있는 실정이지만, 두 나라의 로타리안들은 힘을 합쳐 소년의 심장수술을 성공시켰다. 또 양국은 소아마비 퇴치를 위한 노력과 기울이고 있다.

♣ 명인 Cafe ♣

행복의 비밀은 자신이 좋아하는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하는 일을 좋아하는 것이다. - 앤드류 매튜스

◆ 다음 週會 案內 ◆
 生辰祝賀週會

 3월 2日 (水) 12:30
 허심청 2층 사파이어룸

◆ 오늘의 좋은 생각 - 기회는 비전의 사람을 찾는다 ◆

알렉산더 대왕이 헬라를 통일한 후, 유럽 정복을 위해 헬레스폰트 해협을 건너며 자기의 소유를 장병들에게 다 나눠주자 한 신하가 말했습니다. "그렇게 다 나눠주면 패하는 가치 없지 않습니까?" 그때 대왕이 말했습니다. "나는 희망을 갖겠노라!"

인생의 가장 큰 성공은 실망을 희망으로 바꾸고, 절망을 전망으로 바꾸고, 일루전(illusion, 환각)을 비전(vision, 환상)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현실적인 감각의 바탕 위에 구축된 뚜렷한 비전은 성공의 산실입니다. 성공한 사람들은 대개 '과거의 사실'에 매이기보다는 '미래의 비전'을 가지고 '오늘의 씨앗'을 뿌렸던 사람들입니다.

비전이 있어야 성장이 있습니다. 비전이 있으면 불가능보다 가능성이 더 크게 보이고, 비관보다 낙관이 더 크게 느껴집니다. 비전은 가능성의 어머니입니다. 텔레비전은 말리하고 비전을 품으면 성공도 내 품을 찾은 것입니다. 모든 위대한 일은 비전에서 시작되었고, 위대한 길을 갔던 사람은 한결같이 비전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헨리 포드는 의사가 부르러 말을 타고 가는 도중에 어머니가 돌아가셨습니다. 그 뒤 그는 말보다 차 빠른 것을 만들겠다는 비전을 품고 결국엔 자동차를 만들었습니다. 지금도 디트로이트 자동차 기념관에 가면 헨리 포드의 사진 밑에 이런 글귀가 있다고 합니다. "The Dreamer(꿈꾸는 자)" 비전은 영혼의 안경입니다.

비전은 둘 더미 밑의 보석을 보게 하고, 잠초 속의 네잎 클로버를 보게 합니다. 비전 안에 우리의 미래가 담겨 있습니다. 운명은 환경이 좌우하지 않고 비전이 좌우합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어떤 환경에 있느냐?'가 아니라 '내가 어떤 비전을 가지느냐?' 하는 것입니다. 비전이 짓밟히는 환경일 수록 힘써 비전을 사야 합니다.

비전이 있으면 노인도 젊은 것이고, 비전이 없으면 청년도 늙은 것입니다. 기회는 비전의 사람을 찾습니다. 행운도 비전을 가진 사람에게 잡힙니다. 비전의 전류는 불 꺼진 창과 같은 두뇌로 흘러 들어가 생각을 빛나게 합니다.

비전이란 장대하고 대단한 포부만을 가르키는 말이 아닙니다. 자신이 선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고 꿈을 가지고 있다면 그것을 성취하게 되고, 그것이 또 다른 비전을 낳아 작게는 개인의 만족스런 일생, 크게는 역사의 한 획을 그는 위대한 업적이 되는 것입니다.

사람의 위대성은 그가 가진 비전에 달려 있습니다. 위인들은 대부분 비전을 품고 평범한 환경에서도 비범하게 살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평범함과 비범함의 결정적 차이는 비전의 차이입니다. 역사상 위인들에게는 다른 사람들에게 없는 비전이 있었습니다. 요새 왜 좀 더 성행할까요? 비전이 죽었다는 반증은 아닐까요? 왜 삶이 고단할까요? 비전이 희미해졌다는 표시는 아닐까요?

비전은 몸은 힘들어도 마음은 즐겁게 만듭니다. 비전은 우리 가슴속에 있는 영혼만 빛입니다. 비전은 찬란한 미래로 건너갈 수 있는 든든한 교량입니다. 비전은 '쓸데없는 공상'이 아니라 '쓸모 많은 생각'입니다. 지금 이 시간에 미래의 찬란한 비전을 새롭게 그려보지 않겠습니까?

◆ 2月 山行 豫告 ◆

【 시산제 및 눈꽃축제 】

日時 : 2/27(日) 10:00 경각

集結 : 허심청 앞 / 코스 : 천성산

謹 弔

素陽 趙祥欽 會員 樁府丈제시 2月 18日 午前에 老患으로 別世하셨습니다. 三加 故人の 冥福을 빕니다.

◆ 3月 週會案內 ◆

3/ 2 生辰會員祝賀 3/ 9 外部人士스피치

3/16 會員스피치 3/23 親睦夜間週會

3/30 休會

♥ 3月 生辰會員 ♥

有泉 趙炳珠 無盡 李彤均

素亭 金亨祐 崔錫周

李南根

班	班 長	班 員	%
1班	趙炳珠 出	尹起鎬 M 朴東奎 免 丁石根 出 金東洙 出 鄭大基 出	83
2班	裴斗植 鄭東文	李洙鉉 出 金榮杓 免 白宣基	40
3班	李圭烈 朴盛桓 秋武鎬 出	孫慶鎬 免 盧壽龍	40
4班	金性洙 韓正春 免 吉文甲 免 金 均 出 金岩又 崔洙驥	50	
5班	殷鐘均 出 郭孝龍 免 金泰潤 出 李圭玄 M 鄭泰訓 出 柳根洙 出	100	
6班	崔柱銖 出 金鍾奎 出 徐聖斌 M 金昌煥 出 孫寬植 崔錫周	67	
7班	趙正奎 韓常男 出 文鑽相 金亨祐 出 石亨均 金炳泰	33	
8班	朴東元 出 尹聖國 出 姜鍾奎 全錫虎 吳龍俊 李南根 이동석	33	
9班	李彤均 M 康珉碩 M 安長鉉 出 李在寅 都在哲 出 朴相昱 曹麟鎬 出	71	
10班	朴春培 出 成勳燮 M 金鍾德 M 林奉圭 M 金宋熙 免 趙祥欽 李成宰	71	

總會員: 61 / 出席會員: 21 / 出席免除: 7 M: 8 / 平均出席率: 59 %